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동화 분야

작품 제목

거짓말 그림자 이야기

동화 본문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 민수가 살고 있었다.
민수는 유쾌한 소년이었지만, 자주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가 걱정스러웠다.

“할아버지 오늘 산을 넘어 옆 동네에 갔는데 호수에서 고래를 보았어요! 고래가 저에게 ‘민수야 넌 정말 용감하고 멋있구나’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 10권을 읽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쉬는 날이래요!”
“할아버지 이 사탕은 가게 사장님이 제가 예쁘다고 공짜로 주신거예요!”

“정말 그랬니 민수야?”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 보았다.

그러자 하루는 할아버지가 민수에게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할아버지 이 상자 안에 있는 건 무엇이에요?”
민수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할아버지는 상자의 먼지를 손으로 훌훌 털으며 말했다.
“이 상자 안에 있는 것은 ‘거짓말 그림자’란다. 거짓말을 하면 그림자가 점점 커지게 되는 그림자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상자를 열며 설명했다.

그림자는 작은 유리병에 담겨 있었으며 검은 색으로 신비한 빛을 냈다. 민수는 그것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거짓말 그림자?” 민수가 물었다.

“그래, 민수야. 이 그림자는 거짓말을 하면 커지게 되는 특별한 그림자야. 민수 너는 이 특별한 그림자를 갖고싶으더냐?”

민수는 그림자의 반짝이고 영롱한 빛에 매료되어 갖고싶다고 대답하였다.

“갖고싶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거짓말 그림자를 잠시 빌려줄 것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유리 병의 뚜껑을 열고 민수의 뒤에 뿌려주었다.
유리 병에서 나온 검은 물체는 민수의 등에 붙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와 민수의 그림자가 되었다.
민수는 그림자가 마음에 들어 방방뛰며 좋아했다.

“이야 내 그림자는 특별해 뭔가 반짝이고 신비로워보여!”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치르던 민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주변 친구들은 열심히 문제를 푸는데 나만 답을 모르는 것 같았다.
불안한 마음에 옆 친구의 답안을 힐끔 보았다.
친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민수가 자신의 답안을 보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를 어쩐다..’
이번 시험을 잘 보고 싶었던 민수는 고민이 되었다.
다시 한번 친구의 답안지를 보았지만 선생님도 주변 친구들도 아무도 민수가 친구의 답안을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민수는 친구의 답을 보고 베끼기로 결심했다.
몰래 거짓으로 시험을 잘 보게된 민수는 찝찝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험을 잘 보았다는 마음에 기뻐다.
집에 돌아오는 길 민수는 그림자가 조금 커진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후 민수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었다.
민수의 어머니가 책 읽기 숙제를 다 하고 놀라고 하자
민수는 이미 책을 다 읽었다고 거짓말했다.
“엄마 나는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나 민수는 책의 첫페이지도 넘기지 않았다.

다음 날에는 학교에 가기 싫은 민수가 꾀병을 내었다
“나는 정말로 아파서 학교 못 가.”

그렇게 민수의 거짓말은 계속되었다.
“나는 그 사탕을 훔치지 않았어!”
“그 축구공은 내꺼야!”
“나는 저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
이렇게 민수의 거짓말은 점점 늘어났고, 그와 함께 그림자도 커졌다.
민수의 그림자는 이제 땅에만 붙어있지 않고 민수처럼 서서 민수를 따라다녔다.

친구들은 민수의 그림자를 보고 신기해했다.
“우와 민수야 너의 그림자는 왜 이렇게 커?”
“우와 정말 신기하다”
“민수의 그림자 부럽다! 나도 갖고 싶어!”

민수는 자신의 그림자가 커질수록 기분이 좋았다. 자신이 특별한 것 같고 신기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림자는 이제 민수의 어깨 위에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그림자가 너무 커져서 점차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민수가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림자는 민수를 따라가며 사람들의 길을 막았다.
민수가 앉으면 그림자는 민수 주변의 의자나 탁자를 밀쳐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그림자는 옆 사람의 접시를 밀어 떨어뜨리고 친구들도 밀어냈다.
민수의 학교 수업에서도 그림자는 문제였다.
그림자가 교실 내에서 너무 커져 선생님의 칠판 글씨를 가리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은 민수의 그림자 때문에 칠판을 볼 수 없게 되어 불편했다.

민수의 그림자는 단순히 커진 것만이 아니라 모양새도 점점 더 무시무시해졌다.
그림자는 민수의 거짓말이 계속됨에 따라 더욱 거칠게 변해갔다.
민수의 그림자는 거대해져 갈고리와 같은 손을 가지게 되었고 덩치도 커져 무섭게 보였다.
어린 아이들은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하며 울기도 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민수의 그림자를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신기함과 호기심은 이제 공포로 바뀌었다.

"민수야, 너의 그림자는 왜 저렇게 생겼어?"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
민수는 답을 내뱉으며 눈을 피했다.

"민수야, 너의 그림자가 저렇게 생긴 이유가 뭐야? 왜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야?"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민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민수는 그림자가 왜 저렇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친구들은 점점 민수를 피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다가가면 친구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났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민수의 그림자를 보고 소리치며 도망갔다.

민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의 거짓말로 인한 그림자의 형체는 이제 민수에게도 무서워졌고
민수 자신도 거울을 볼 때마다 그림자의 갈고리 손을 바라보며 끔찍한 기분을 느꼈다.

민수는 결국 할아버지에게 상의를 구하러 갔다.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라 들어온 그림자가 문보다 커 문틀이 박살나 버렸다.
민수는 울먹이며 할아버지에게 그림자를 가리켰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슨 상황인지 다 이해하는 듯 보였다.
민수는 할아버지에게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해주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민수야, 이 할아버지도 어릴 적에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단다. 그 때도 이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녔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거짓말들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어. 그리고 그림자는 다시 작아졌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조심스레 희망을 느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저의 거짓말을 모두 고백하고 사과하면 그림자가 작아질까요?"

그러나 민수는 다시금 침울해졌다.

"하지만 할아버지, 어떻게 내가 한 거짓말들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답했다.

"민수야 이해한다. 거짓말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란다. 그러나 잘못된 일을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의 고백을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진실로 사람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올바른 길이니까."

민수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가셔지고 대신 희망과 용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까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줄까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야, 사람들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다. 너의 솔직한 고백과 사과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할 거야. 네가 한 거짓말보다 네가 보이는 용기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진정이 되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진실의 길을 걷고 싶었다.

"할아버지, 그럼 저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천천히 시작하면 돼, 민수야. 먼저 너의 엄마와 아빠, 친구들에게 한 거짓말부터 고백해 보렴. 그들에게 솔직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들은 널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줄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거짓말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먼저 엄마에게 숙제를 다 하지 않았던 걸 고백하고, 친구들에게는 시험 답안을 베꼈다고 고백했다.

엄마는 민수의 거짓말들을 듣고 잠시 당황했으나 민수의 눈에 보이는 진실된 뉘우침과 용기 있는 고백에 용서의 마음으로 안아주었다.

"민수야, 너가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고백하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야. 나도 네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자랑스러워." 엄마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다.

친구들에게도 고백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친구들은 민수가 시험 답안을 베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중에는 민수를 비난하는 친구도 있었다.

"민수야,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정말 실망이야!" 한 친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 친구에게도 사과했다.

"진짜 미안해.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걸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일 절대로 안 할게. 너희들을 실망 시킨 거, 정말 미안해."

그러자 화를 냈던 친구의 마음도 점점 풀어졌다.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백 앞에 그 친구도 민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었다.

"알았어, 민수야. 네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는 거 보니, 나도 널 이해해.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자, 약속해."

이렇게 민수의 거짓말 고백 여정은 하나씩 해결되어 갔다.

그리고 거짓말을 고백할 때마다 그림자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림자가 줄어들자 민수의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에게 돌아간 민수는, "할아버지, 이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게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림자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기특하게 바라 봤다.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할아버지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림자가 완전히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자, 할아버지와 민수는 함께 그림자를 작은 병에 넣었다.

병은 투명하게 맑았고 그 속에서 그림자는 더 이상 무시무시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자를 담은 유리병을 오래된 상자에 넣었다.

그들은 서로 미소 지으며 창밖에서 비추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